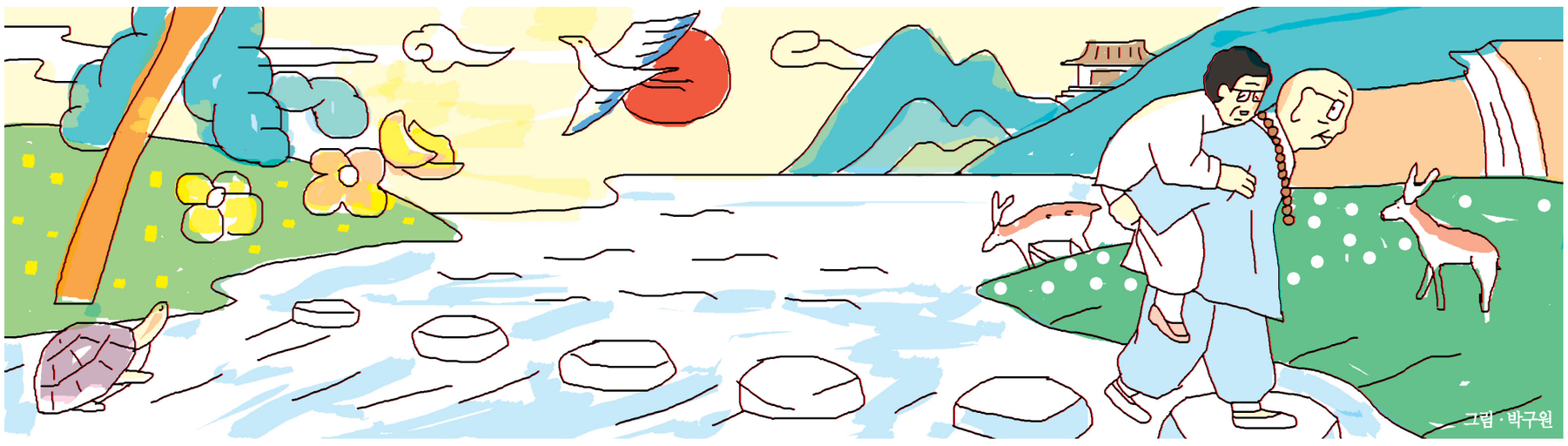
박원자의 母情佛心 ❼ 불음포교사 지범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찬불가 '부모은중경'을 부른 불음포교사 지범 스님은 어머니가 직접 사찰로 보내 출가시켰다. 자식 6명을 잇달아 보내고 몸이 약한 막내아들의 단명을 막기위한 선택이었다. 출가 후 방황하던 스님은 잘못된 선택도 하지만, 불효를 깨닫고 불음포교사로 거듭났다.

막내아들 장수 빌며 출가시킨 母情


그림 · 박구원

〈부모은중경〉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지를 설한 불교 경전이다. 부모의 열 가지 은혜를 10장으로 나누어, 잉태의 순간에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가없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은의 방법, 그리고 그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이 경전을 읽고 있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 채 얼마나 불효하며 살아왔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효를 실천하게 하는 효경(孝經)인 셈이다.

자식이 집을 떠나 길을 나서면
어머니 마음도 타향에 있네
죽어서 영이별도 서러웁거늘
살아서 생이별은 더욱 아파서 흐르는 눈물은 마를 날 없네

자식이 괴로울 땐 대신 하시고 고달픈 육신을 걱정하시네
어머니 높은 연세 백 살이어도 팔순의 그 아들을 걱정하느라
가슴에 한숨은 쉴 날이 없네

-'근심걱정'(조영근 작곡, 부모은중경 中)

노모 한 분이 대극장 한쪽에 앉아 이 노래를 들었다. 생떼 같은 자식 여섯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혼신의 힘으로 살려낸 막내아들의 노래가 애절하게 다가왔다. 파란만장했던 지난 팔십 평생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갔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잠시 후 노래를 다 부른 아들이 한평생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온 어머니를 무대로 모셨다. 한복을 곱게 입은 어머니는 천천히 걸어서 무대 중앙에 서서 기다리는 아들 곁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지금 노래를 부른 여기 지범 스님은 제 막내아들입니다. 어려서 홍역을 호되게 앓았어요. 죽은 줄 알고 이불에 싸서 방 윗목에 두었는데 다음 날 일어나보니 깨어서 울고 있더군요. 그렇게 살아났는데 홍역 후유증 때문인지 말을 몹시 더듬는 아이가 되었어요. 몸도 허약했지요. 여덟 남매 중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노래를 부르는 스님이 되었어요. 잘난 열 아들 부럽지 않습니다."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을 꽉 채운 1500명의 관객들은 일제히 어머니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박수소리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아들 스님은 가슴이 먹먹해져 한참이나 다음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지범 스님은 부모님의 은혜를 설한 〈부모은중경〉을 비롯해 찬불명상곡, 선시명상곡 등을 음반으로 내고 노래를 통해 불음을 전하는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제주도의 조촐한 토굴 불광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효도를 다한 효심 깊은 스님으로도 유명하다.

지범 스님의 어머니는 16살에 백양사 근처 장성으로 시집와서 아들 다섯, 딸 셋을 낳았다. 19살에 첫 아들을 낳은 뒤 늦둥이 막내아들을 40살쯤에 낳았다. 그런데 16살에 서당 훈장을 할 만큼 총명하던 큰 아들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뒤이어 자식 둘이 큰아들을 따라갔다. 어린 자식 셋을 잃은 어머니는 망연자실했다. 자식의 단명을 막기 위해 넷째 아들을 출가시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을 심하게 더듬던 막내아들이 시름시름 앓으며 좀처럼 건강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놓아두었다가는 남은 자식들도 언제 잃을지 모르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 백양사의 석산 스님을 찾아갔다.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백양사에 다니며 만암 노스님을 비롯해 서옹 스님, 석산 스님 등을 모셨다. 면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넉넉한 살림살이를 살았던 터라, 햅쌀이 나오면 수레에 싣고 백양사로 가서 공양을 올리곤 했다.

불사가 있을 때는 화주를 도맡아 했다. 경전을 읽고 '관세음보살' 을 입에 달고 살만큼 신심이 깊었다. 걸인들을 집으로 들여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었다. 어머니를 찾는 사람들로 늘 집이 북적일 만큼 덕화가 깊었으나 자식들을 먼저 앞세우는 불행은 막지 못했다.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석산 스님은 어머니에게 막내아들을 출가시키라고 권했다. 절에 와서 기도하며 살면 단명할 팔자를 면할 수 있다는 스님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손을 잡고 백양사로 갔다.

"너는 몸이 약하니까 부처님께 귀의해야 오래 살 수 있어."

절에 홀로 남은 13살 막내아들은 절집의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다. 첫날부터 수곽의 물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사흘 만에 절을 나와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 70리 밖에 있던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럼, 절에서 엄마랑 같이 살자. 너는 절에 있어야 살 수 있어."

자식 6명 잇달아 보낸 어머니
"출가하면 장수한다" 이야기에
13세 막내아들 백양사로 보내

출가한 아들, 방황에 자살 기도
잘못 깨닫고 '부모은중경' 노래
그토록 찾는 부처는 '엄마'였다

다시 아들의 손을 잡고 백양사로 갔다. 막내아들이 마음을 잡을 때까지 함께 있어줄 요량이었다. 어머니가 곁에 있자 아들은 마음을 잡고 행자생활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염불을 익히며 책을 읽는 것을 바라보며 오로지 자식의 수명장수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불행은 그치지 않았다. 단명을 막아보려고 출가시켰던 넷째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병을 얻어 17살에 죽은 것이다. 좀처럼 아픔을 내색하지 않은 채 모든 게 다 자신의 업이라며 부처님께 의지해 참회기도를 했던 어머니였으나, 이번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자주 담뱃대를 찾았다. 다행히 막내아들이 수계하고 신심을 일으키더니 통도사 강원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다.

지범 스님이 강원을 졸업하고 범어사, 대흥사 등 제방에서 정진한 다음 제대하고 돌아와 보니 어머니의 삶은 여전히 고단해보였다. 먼저 떠난 자식들이 남기고 간 아이들 등 여덟 명의 식솔을 책임지고 있었다. 차마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 감당하기엔 현실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다. 수행자의 길에서 바라본 성불도 멀어보였다. 머리는 남보다 앞서 가는데 말은 늘 눌변이었던 상처는 출가해서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울감이 깊어져가던 어느 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한 웅큼의 약을 입에 털어 넣은 것이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가 보이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 딸 여섯을 가슴에 묻은 채 고단한 삶을 묵묵히 참아내며 막내아들인 제가 단명할까봐 얼마나 많은 나날을 가슴 졸이며 기도하셨던가를 생각하니 불효막심한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수행하면서 그토록 찾으려 몸부림쳤던 '부처'가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 자신을 낳아 기르고 수행자가 되게 해 목숨을 건지게 한 어머니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었다. 부모 없는 손주들을 키우고 집을 나간 남편이 밖에서 얻은 자식들까지 기르고 있던 어머니가 바로 지장보살이었다.

전화위복이라고 했던가. 어머니를 보며 분연히 일어섰다. 이제 내가 어머니를 살리리라.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절로 갔다. 그곳에 살며 신도들을 교화하며 백양사, 대흥사, 선운사 등 큰 절에 가서 탁발을 해다 어머니 대신 조카들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조카 중 하나가 말썽을 피워 혼쭐을 낸 것이 큰 화근이 되었다. 충격을 받은 조카가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어머니는 울었고, 스님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깨어나지 않으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터였다. 어머니의 기도 덕이었을까, 다행히 조카는 사흘 만에 깨어났다. 마음이 더 갈 수 밖에 없었던 15살의 조카에게 스님이 물었다.

"너, 절에 가서 살래?"

아들에 이어 손자를 출가시킬 어머니의 운명이었던가. 따라나선 조카를 사형에게 출가시켰다. 조카는 절에 들어가자마자 잠재해있던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년 만에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더니 동국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하버드대학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 예일대 종교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불교를 서구에 전하고 있는 일미 스님이 그 조카다. 어머니는 손자가 출가해서 출중한 수행자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척 기뻐하셨다.

어머니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불효를 참회했던 지범 스님은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한 〈부모은중경〉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어머니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선시를 명상곡으로 만들어 앨범을 발표하고 노래했다. 노래를 부르면서부터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눌변증세에서도 벗어났다.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며 포교할 수 있는 재능을 준 어머니께도 감사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더듬다가도 노래만 부르면 물 흐르듯 막힘없이 낭랑한 소리로 바뀌곤 했던 음악적 재능이 어머니의 오랜 기도로 꽃을 피운 것이다.

어머니도 아들 스님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깊이 박혀있던 삶의 상처를 치유했다. 무겁고 두터운 업이 벗겨지는 것처럼 시원했다. 아들 스님의 발걸음은 교도소, 군부대, 산사음악회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일깨웠다.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은 '불음의 맑은 바람이 온 누리에 퍼지다' 라는 뜻을 담은 휘호 '청풍잡지(淸風迊地)' 를 써주며, 음성 포교가 포교의 첨단이라고 격려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영원하다고 했던가.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을 부르던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어 주무실 때도 손가락을 움직였다. 여든이 넘어서는 무명 손수건을 만들어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손수건 가장자리를 꿰매며 '우리 막내아들 스님 수명 장수하게 해주소' 하고 기도했다.

말년에 〈아미타경〉을 독송하며 아미타불을 부르던 어머니는 91살에 눈을 감으셨다. 제주도에서 주는 '장한 어머니상' 을 받고 곡기를 끊은 지 10일 만에 아들 스님의 어깨에 기대어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갔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길러주신 우리들 부모님은 다 부처님입니다. 자식들이 영원히 섬겨야 할 대상이자 종교 그 자체죠."

지범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반문해보았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는 나는 과연 '부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까. 자식을 위한 기도에 인색했던 내가 부끄러울 뿐이다.

〈작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